

연예종합

MC몽 불뚱...조성모·휘성 울고싶어라

조성모 측근 꽃미남 모임 '쫄보불' '하하몽쇼'전격중단...첫공개 불발 휘성도 "촬영 스케줄 비워줬는데" 신정환 파문에 이루·이유도 올상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조성모



휘성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해의 원정도박’, ‘병역기피’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과 MC 몽의 파문으로 올상인 연예인들이 있다. 이들은 두 파문과 별다른 연관도 없지만 공교롭게도 함께 방송에 출연한 것 때문에 예상 못했던 난처한 경우에 처한 것이다. 두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해당 방송사들은 최근 더 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방송중단과 출연중지를 결

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정환, MC 몽과 출연했던 동료들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수 조성모와 휘성은 MC몽과 하하가 진행하던 SBS ‘하하몽쇼’의 전격 중단 결정의 최대 희생양이다. 조성모는 19일 방송예정이었던 ‘하하몽쇼’에서 데뷔 12주년을 기념해 동료연예인 모임인 ‘쫄보불’과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쫄보불’은 ‘조금은 사이코 같지만 볼수록 매

력있다’는 뜻으로, 조성모를 비롯해 장근석, 슈퍼주니어 김희철, FT아일랜드 이홍기, 상주, 낫선 등의 꽃미남 모임이다. 그동안 한번도 방송에 공개하지 않았던 ‘쫄보불’이 ‘하하몽쇼’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면서 촬영 분량은 자동으로 폐기된 상황이다. 제작진 측은 “조성모 측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방송 재개여부는 MC몽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온 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휘성은 조성모 편이 방송된 후 다음 회에 촬영할 예정이었다. 촬영을 위해 스케줄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기게 됐다. MC몽이 출연하던 KBS 2TV ‘해피선데이’의 인기코너 ‘1박2일’도 상황은 비

슷하다. 최근 ‘1박2일’에서 MC몽은 은근석, 이승기와 함께 ‘섭섭당’을 만들어 강호동·이수근·김종민 등 ‘올드보이’팀에 대항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그러나 MC몽이 빠지면서 코너를 5인 제제로 꾸리게 돼 전체 균형도 깨지고 대결구도도 무너지게 됐다. 신정환 때문에 생긴 여파도 만만치 않다. 15일 방송한 MBC ‘황금어장’의 코너 ‘라디오스타’에서 신정환의 촬영 분량을 통째로 편집하자 게스트로 참여했던 연기자 박준규, 가수 이루, 포커즈의 이유의 촬영분이 대폭 줄었다. 애초 이들의 출연분량은 2주로 나눠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신정환의 분량을 모두 삭제하는 과정에서 1주로 줄어들었다. 연예인들 못지않게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신정환과 MC몽의 출연분량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편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방신기 3인 日소속사 “지원 중단”

“한국소속사 폭력단 연루문제 명쾌하게 해결될때까지 중단”



시아준수·빅키유천·영웅재중(왼쪽부터)

독자활동에 나선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빅키유천(이하 동방신기 3인)의 일본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동방신기 3인의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 3인의 일본 내 연예 활동 지원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이벡스 측은 매니지먼트 중단 이유로 밝힌 것은 동방신기 3인의 한국업무 담당하는 회사 대표의 경력과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 등이다. 에이벡스는 “동방신기 3인의 한국 매니지먼트사인 C-JeS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폭력단 간부의 경력을 가진 아버지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당 아티스트를 협박해 강요죄로 복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현재 폭력단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항은 보도내용이 사실임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벡스는 “또한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동방신기 3인의 전속 계약확인소송의 진전에 따라 그들과 당사와 맺은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는 기업윤리준수 경영방침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의 연예인 활동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중단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에이벡스는 “이미 예정된 동방신기 3인의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동방신기 5인과 당사의 전속계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소속사 자금난 핑계 1억 빌려”

불법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외에 머물고 있는 신정환이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6일 오후 40대 중반의 이모 씨가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신정환에게 2009년 2~7월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년 전 지인을 통해 신정환을 알게 됐으며, 신정환은 ‘소속 기획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고소인인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정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신정환의 개인 채무관계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정환은 7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지인을 통해 1억8000만원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60대 이모 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신정환은 “보증만 썼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8월27일 필리핀 세부로 출국해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잃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은 마카오에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정확한 그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차승원 식중독 급거 귀국 소속사 “호전...폐혈증 아니다”



차승원(사진)이 SBS 새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일본 촬영 중 건강이 악화해 급거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에서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하 ‘아테나’) 촬영을 진행해온 차승원은 13일 식중독 증세로 귀국했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16일 “식중독 증세가 심했다”면서 “귀국 직전부터 증세를 호소하며 그는 상당한 고열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차승원은 귀국 직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테나’의 차승원 출연 분량은 촬영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본 촬영 분량은 많지 않아 전체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이 폐혈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차승원은 치료를 받고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원은 건강이 회복 되는데로 일본 촬영에 다시 합류할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닥터 챔프’ 상금 3인방 차예련, 김소연, 강소라(왼쪽부터)가 16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월화드라마 ‘닥터 챔프’ 제작발표회에서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닥터 챔프’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담당 주치의와 선수들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과 우정을 담은 새로운 형식의 스포츠 메디컬 드라마다.

■ 잇 북

●내성적인 당신의 강점에 주목하라
낸시 앤코워츠 지음·신현정 옮김·갈매나무 펴냄·1만2000원

‘내성적인 사람에게 잘 맞는 자기 PR 시크릿’이라는 부제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PR에 활용할 것인가를 말한다. 미국 ‘퍼블리



성적인 혹은 내성적 성향을 지닌 유명 인사들의 생생한 조언을 인터뷰로써 들려준다. 또 내성적인 사람의 내면을

탐험, 이들이 가진 강점을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에서부터, 이를 어떻게 활용해 자기 PR을 할 것인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목표 고객에 맞는 PR 전략을 세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 프레젠테이션에 강해지는 방법은 물론 구직 면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소중한 행로를 내놓는다.

‘명품녀’ 방송 논란...사생활 폭로로 비화

‘4억 명품녀’ 파문이 ‘조작 방송’ 논란에서 출연자 김 모씨와 전남편 간의 사생활 ‘폭로와 논쟁’으로 바뀌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고 있다. 당초 이번 논란은 ‘4억 명품녀’ 김 모씨와 그녀가 출연한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그램 ‘텐트 인 더 시티’ 제작진이 방송 내용의 조작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런데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등장한 김 씨의 전남편 문 모씨가 그녀와 치열한 진실 공방 끝에 최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뜻을 밝히며 파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김 씨와 지난해 1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피부과 의사 문 씨는 최근 그녀의 신변을 둘러싸고 갖가

지 이야기가 나오자 각종 인터뷰를 통해 “(용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김 씨의 방송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혼인신고 역시 (문 씨의)빚을 갚기 위한 대출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급기야 문 씨는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뜻까지 밝혔다. 결국 ‘방송 조작’ 파문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인 문 씨와 김 씨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이혜라 기자 goff1024@donga.com

톱스타, 스크린 앞으로 헤쳐모여!

송승헌·주진모 주연 ‘무적자’ 김태희·양동근 ‘그랑프리’ 등 연휴 개봉...무대 행사도 풍성



출연 배우들은 서울에 이어 곧바로 대구와 부산을 찾는 쪽으로 일정을 짰다. 김태희와 양동근도 같은 기

울해 모처럼 긴 추석연휴를 맞아 톱스타들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대 9일에 달하는 연휴 기간에 맞춰 16일에 나란히 개봉하는 한국 영화 4편의 주인공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관객과 만나는 무대 인사에 나선다. 송승헌(사진), 김태희, 김수로, 한재석, 이민정, 엄태웅 등 스타들을 직접 보는 흔하지 않은 기회다. 가장 뜨거운 기간은 연휴의 시작인 17일 오후부터 18일과 19일까지 사흘. 이 때는 서울 등 경기 지역에서 무대 인사를 치르고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이민정과 엄태웅은 서울에서 관객과 만난다. 19일에는 서로 지역을 바꾼다. 이혜라 기자 goff1024@donga.com

간 자신들이 출연한 ‘그랑프리’가 상영하는 서울 지역 극장을 순회한다. 개봉 첫 주인공만 관객 반응을 살핀 뒤 추석을 전후로 수도권 지역으로 무대인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장진 감독의 코미디 ‘퀴즈왕’과 이민정·엄태웅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사이좋게 무대인사 지역을 겹치지 않게 나뉘었다. 18일에 ‘퀴즈왕’의 주인공인 김수로, 한재석, 류승룡, 심은경은 일산 등 경기 지역에서 무대 인사를 치르고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이민정과 엄태웅은 서울에서 관객과 만난다. 19일에는 서로 지역을 바꾼다.

이혜라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랭킹 뉴스

●종합순위

순위

- ① 개관 6주년 기념공연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가을음악회
- ②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 ③ 뮤지컬 구름뽕-전주
- ④ 뮤지컬 김중옥 찾기-포항
- ⑤ 유기구라모토 Piano Poem-전주
- ⑥ 2010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 ⑦ 뮤지컬 천정엄마-전주
- ⑧ 로하스 & 로드리게스의 상그레 플라멩카-대구
- ⑨ 사라장 초청연주회-대구
- ⑩ 한국예술종합학교 - 코지 판 투테

공연



집계기간 : 9월 9일~9월 15일, 자료 : 티켓링크